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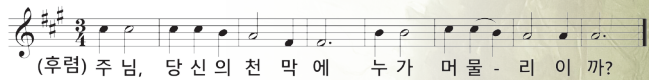


연중 제16주일 (농민 주일)

제1독서 창세기 18,1~10ㄴ

화답송 시편 15(14),2~3 7.3ㄴㄷ~4 7ㄴ.5 (© 17)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1.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2.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3.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제2독서 콜로새서 1,24~28

복음 환호송 루카 8,15 참조

◎ 알렐루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복음 루카 10,38~42

영성체송 시편 111(110),4~5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뫓이 중헌디?

우리 사회는 때늦은 개화기와 일제의 강제지배, 한국전쟁과 같은 격동기의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너무나도 험벗고 굶주린 생활 등을 오랫동안 지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이자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잘 살아 보자"는 기치 아래, 오로지 '개발'과 '발전'이라는 '국가 주도적 성장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좀 덜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꿈은 이루어졌고, 바라던 세상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토록 바라던 '의·식·주'가 다 갖추어졌음에도, 우리 삶의 만족도와 질은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교통은 발달하고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되었지만, 이웃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생활은 더 편리해졌지만, 오히려 삶은 더 바쁘고 분주해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고도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즉, "뫓이 중헌디?"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든 화학비료가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 곡식이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농부들 처럼(야고 5, 7 참조) 하느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삶 아니겠습니까? 마르타처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마

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하느님의 말씀을 헤아리며, 주님의 계명을 삶의 잣대로 삼아, 바르고 착한 마음과 인내로써 이 세상을 순리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세상 걱정에서 빠지지 말고 재물의 유혹에 짓눌리지 마라."(요한 크리소스토모, 「마태오 복음 강해」 44장 3절 참조)



김 현
안셀모 신부
연양성당 주임



쌀 한 톨 절로 생기지 않는데도
고마운 이웃들의 땀방울을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오늘 하루라도 시원한 바람에
마음을 실어 보냅니다.



글: 정경애 마리아고레티 시인(만덕성당) 그림: 최창임 프란체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7.22(월)~23(화)
김현 신부(연양성당 주임)
7.24(수)~27(토)
전재경 신부(화명성당 보좌)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진행: 김현지 리나

7.23(화) 함께하는 여정
출연: 교정사목 봉사자들
7.25(목) 퀴즈공트, 성경에서 온 그대
출연: 김종이 신부, 임영천 헬레나 리포터

신부들의 수다 7.27(토) 13:00~14:00

진행: 홍영택 신부, 김병희 신부, 이추성 신부
신사의 품격(신부들의 사연 있는 애장품)
7월의 애장품: 윤기성 신부(라디오)

"감사합니다."

2014년, 가족들과 함께 사이판을 찾았을 때 눈부신 태양과 에메랄드빛 바다, 소박하면서도 여유가 넘치는 사람들, 사이판은 아름답고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듬해 사이판 한인성당으로 발령을 받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소임지에 와서 보게 된 것은, 태풍 사우렐론(2015년 8월)으로 부서진 집들과 뿌리째 뽑혀버린 나무들, 뭔가 어수선하고 황량하기까지 한 모습의 사이판이었습니다. 한동안 이곳 사람들의 대화는 기/승/전/태풍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한동안 열매 맺지 못하던 나무들도 열매를 맺고, 꽃도 피우기 시작하면서, 태풍에

대한 쓰린 기억들도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또다시 태풍 "위투"(2018년 10월)가 사이판을 강타했고, 당시의 피해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전기가 복구된 올해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섬 전체가 발전기 소음과 매연으로 가득했고, 예전의 고요함과 맑고 푸른 하늘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 저희 사이판 한인성당도 복구공사를 대충 이나마 마무리를 지었고, 6월 23일에는 이곳 사이판 주교님을 모시고 축복식과 식사 나눔도 가졌습니다. 다들 태풍 덕에 새집이 되었다고 농담도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

면, 저와 사이판 교우들의 안부를 묻는 연락들, 하느님의 집을 복구하는데 쓰라고 보내주신 성금들, 이 모든 것이, 어둡고 막막한 무덤과 같은 상황에서도 끝내 부활의 희망을 놓지 말라는 주님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세계 각처의 한인교우들과 한국의 교우들이 보내 주신 관심과 도움 속에서, 주님 안에서의 친교와 일치, 형제애를 다시금 느꼈고, 덕분에 저희도, 저희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로컬 성당에 성금을 보내며, 부족함 속에서도 서로 나누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공동체를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우님들께, 특별히 부산교구 주교님과 신부님들, 교구민들께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장현우 안드레아 신부
사이판한인성당 주임



"프리다의 그해 여름" - 나의 그해 여름은 어땠는지

감독 : 카를라 시몬 피포 | 2017년작

너무 큰 슬픔이 닥쳐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정신이 아득해서 멍한 상태가 된다. 그러다 고여 있던 아픔이 조금씩 커지면 건잡을 수 없는 눈물이 북물 터지듯 흘러내린다.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여섯 살 프리다에게 찾아온 슬픔이 그랬다. 세상에 없는 그리운 엄마. 상실로 뒤죽박죽인데 정겨운 마당을 떠나 외삼촌 가족과 살아야 하는 시골살이. 같이 놀아 줄 언니가 생겨 프리다만 졸졸 따라다니는 사촌 동생 아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 프리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기만 하다.

‘프리다의 그해 여름’은 1993년 여름이 배경이다. 카를라 시몬 감독의 유년을 프리다에게 투영하며 프리다의 내면을 담아내는 성장 영화이자 직접 각본을 쓴 자전적 데뷔작이다.

소꿉놀이를 하며 아픈 엄마 역할을 하는 프리다의 능청스

러운 연기와 언니의 모든 행동이 다 좋아 보이는 아나의 천진함은 너무 사랑스럽다. 두 아이가 울창한 숲과 나무를 뛰어다니다 물놀이를 하는 장면은 모두를 유년으로 데려간다.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다며 괜한 질투와 심술을 부리고 한밤중 가출을 감행하는 프리다처럼 우리 내면의 아이는 괜찮는지 생각해 본다.

영화는 천진한 아이들의 내밀한 세계를 보여주며 상실의 아픔을 싱그러운 초록 숲에 내려놓는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엄마의 죽음. 그 당시 약물 남용과 에이즈 사망자가 많았던 스페인의 사회상도 담았다. 슬프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던 프리다가 외삼촌 부모와 즐겁게 놀다가 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을까.

나의 그해 여름은 어땠는지... 그 아이는 안녕한지 푸른 7월에 잠시 다녀오면 어떨까.

이미영 체칠리아 (가톨릭영화제 프로그래머 cecil-e@hanmail.net)

← 바오로차장님

2019년 7월 21일



바오로차장님

신부님, 얼굴 뵙고는 말 못 할 것 같아서 톡으로 연락드립니다.

예, 바오로차장님, 어떤 일입니까?



바오로차장님

몇 년째 여름 신앙학교 준비하고 있는데, 힘들기도 하고, 자꾸 신앙에 회의가 생기네요.

그래서 여름신앙학교까지만 하고 그만두었으면 해서요...

어.. 무슨 일 있었습니까?



바오로차장님

해마다 평소엔 신경도 안 쓰다가 행사 준비한다고 한창 바쁠 때 와서는,

예산 많이 쓴다, 장소를 왜 거기로 잡았냐, 아이들이 왜 이거 밖에 안가냐, 행사가 코앞인데 준비가 이거 밖에 안 돼 있냐,

성당이 직장도 아니고, 마치 직장 부하 대하듯 하대하시고...

아이고...



바오로차장님

이런 일 몇 번 당하니, 힘도 빠지고, 내가 이럴려고 성당 다니나 싶고...그래요 신부님.

신자분들 중에는 신앙공동체를 잘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못 살폈습니다.



바오로차장님

아닙니다, 신부님...

그분들에게 성당은 그런 데가 아니라고, 또 신자들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잘 알려 드릴 테니까,

차장님은 우리 선생님들하고 아이들 잘 챙겨주세요.

마치고 같이 소주 한잔 합시다.



바오로차장님

신부님, 마음 쓰시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소리는 피조물이 낼 수 있는 가장 깊은 것입니다. 시편 속에서 노래하는 이는 모든 만물과 더불어 하느님께 찬미를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찬미의 영역이 그저 작은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을 만나고 찬미하고, 그분의 은총을 발견하는 것은 신앙인의 눈빛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회칙 『찬미 받으소서』에서 ‘우리는 생태적인 회개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시선이 얼마나 더 깊어져야 하며, 얼마나 수많은 생명과 존재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격려해 주십니다.

농민 주일인 오늘은 하느님을 닮아 생명을 심고, 또한 많은 이들을 위해 기꺼이 먹을 것을 내어주며 창조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연대하고, 땅과 생명에 대해 성찰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하나의 생명의 통공에 따른 결과일 테지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내어줌으로 그 공로의 연결로 지금 여기의 자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모든 생명들, 농민들과 의인들과 나를 있게 해준 이들의 공로가 전해져 우리의 삶이 지금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농민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러

한 통공에 대한 신앙고백입니다.

이번 농민 주일 만큼은 단순히 시혜적으로 농민들과 농촌을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농업을 통해 삶의 양식을 얻어왔고, 인류 역사를 통해 자연과 함께 그리고 공존하며, 창조사업을 이어가고 있음을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농촌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루도 서있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소비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있게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한 성찰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모습



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란 하나도 없음을 알고, 그분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고 이어나가기 위한 성찰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농민 주일을 맞아 ‘가장 작고 약한 이들에게 해 준 것이 나에게 해 준 것이다’라는 그분의 말씀처럼 공동의 집인 지구 생태의 위기 앞에 가장 작은 약한 이들에게 세심한 연대와 노력이 우리를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그러한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농촌살리기운동에 힘을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인한 알베르토 신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장

기장성당, 기공식



교구장 손삼석 주교는 강론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느님의 성전이다.” 며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여, 저 역시 그 기도에

기장성당(주임: 김성학 신부, 회장: 차임갑 루카)은 낡고 노후된 성당 건물을 철거하고, 지난 7월 13일(토) 11:00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 첫 삽을 떴다. 이날 기공식은 교구장 손삼석 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으며,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새 성전 기공식을 축하했다.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기장성당은 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의 연면적 2,090.16㎡(약 632평)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다.(주소: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53-5번지 외 3필지)



토현성당(주임: 이정민 신부, 회장: 장철우 제레온) 신자들은 희망의 해 실천지침인 ‘희망을 전하는 선교의 일상화’를 위해 쉬는 교

우 100명 회두, 예비신자 100명 입교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성당은 구역별로 선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교 추진 활동비를 지원하여, 보다 체계적

이고 발 빠르게 선교 활동을 실시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 6월 30일 현재 예비신자 32명 입교, 쉬는 교우 42명을 회두시켰다.

성서사도직, 성경 특강 - 말씀 봉사자 25명 선서식



지난 7월 1일(토), 13일(토) 구봉성당에서 ‘사목 서간에 따른 건전한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성서사도직 지도 신부인 권순도 신부의 특강이 있었다. 교구 총대리 권지호 신부의 주례로 봉헌된 이날 미사 중에 ‘말씀 봉사자 선서식(25명)’도 함께 진행되었다. 앞으로 말씀 봉사자는 본당 일선에서 그간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신자들과 함께 성경 그룹 공부를 진행한다.

제8기 사회교리학교 입문과정 수료

7월 11일(목)
가톨릭센터 3층 교육실
내용: 5/2~7/11 10주간 교육
32명 수료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준한 신부) 주관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7월 7일(일) 본당 / 주임: 김윤태 신부, 회장: 안우규 유스타노



6월 29일(토) 본당 / 주임: 정창식 신부, 이재현 신부, 회장: 이순공 요셉

연양성당, 순교성인 유해 참배실 개방



올해 기해박해 180주년을 맞아, 연양성당(주임 : 김현 신부, 강인구 신부, 회장 : 윤동민 토마스)은 순

교성인 유해 참배실을 순례객뿐만 아니라 여행객,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한다. 연양성당 본당 설립 90주년(2017년) 기념으로 제작된 유해 참배실은 기해박해 때 순교한 성 앙베르 주교, 성 사스탕 신부, 성 모방 베드로 신부, 성 김대건 신부 네 분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

참배실 개방 시간 : 09:00~17:00(평일,주일)

교 구

2021학년도 신학대학 지원자 모집 및 피정

· 8.17(토) 13:30~18(일) 13:00 · 부산 은혜의 집
대상 : 현재 고2 및 일반(2021학년도 신학대학에 지원할 지방자는 반드시 이 피정에 참석)
마감 : 8.6(화) / 회비 : 3만 5천원
문의 : 629-8760(성소국)
※ 7월은 울산 월평성당 성소자를 위한 모임 미사 없습니다.

교구 혼인강좌 교수 초빙

분야 : 심리학 및 유관 학문
서류 : 이력서, 교적, 박사학위증 사본
제출 : 7월말까지 우편접수(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51번길 8-7 가정사목국) / 문의 : 441-3500

기관·제 단체·위원회

시각장애인선교회(큰빛) 후원회 미사

· 7.22(월) 12:00 · 선교회 3층 성전
문의 : 464-3909

해양사목 월미사

· 7.22(월) 14:00 · 가톨릭센터 3층
주례 : 이균태 신부 / 문의 : 464-2707

군중후원회 미사

부산 : 7.25(목) 14:00 가톨릭센터 경당
주례 : 안원철 신부(25사단 비통성당)
문의 : 751-3610

노동사목 바자율미사(후원미사)

· 7.25(목) 19:00 / 문의 : 441-6403
· 노동사목센터 교육실(사상성당 옆)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후원 블루프렌즈 미사

· 7.27(토) 15:00 · 가톨릭센터 경당
찬양사도들의 성가와 함께 합니다
문의 : 600-8800

교구평협 사복시성기원 도보성지순례

· 7.27(토) 09:00(11:00 미사)
· 삼랑진역 출발, 김범우모 순례
기차 : 부산역 07:50 출발, 구포 08:04
개인 도시락 지참, 김범우교육관 식사 예약
(055-356 7030) / 문의 : 622-5588(평협)

부산ME 소개모임

울산 : 8.11(일) 15:00 복산성당
부산 : 8.12(월) 20:00 남천성당
369차 ME주말 : 7.26(금)~28(일)
사랑방 ME 소개모임 : 수시 / 문의 : 010-5875-4767
010-4872-5051(울산), www.mekorea.or.kr/bs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청소년, 젊은이 기도회
· 7.22(월) 19:30 전포성당
· 7.24(수) 20:00 울산대리구청 별관
- 수요치유기도회
· 7.24(수) 12:50~16:00
- 금요철야기도회
· 7.26(금) 23:00~27(토) 04:00
강사 : 두현자 자매
- 457차 교구 성령묵상회(일반)
· 7.26(금) 19:30~28(일) 17:30
회비 : 15만원(교재비 5천원 별도)
18:3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지하도 입구
- 후원회 월미사 (도유와 안수)
· 7.29(월) 11:00~15:10 / 중식
- 458차 교구 성령묵상회(일반)
· 8.2(금) 19:30~4(일) 17:30
회비와 버스는 457차와 동일

메리놀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모집

봉사 : 주 2회 / 모집 : 7.22(월)~8.16(금)
대상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이수하신 분,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신 분 / 문의 : 461-2340 (담당수녀), 461-2709(사회복지사)
* 남, 여 목욕봉사자 모집합니다.

우리농 배송실무자(남) 구함

자격 : PC가능(한글, 엑셀), 1종보통면허중소지
서류 : 본당신부님추천서,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 마감 : 8.9(금) 가톨릭센터 5층
문의 : 464-8495~6, woori-pusan@hanmail.net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 본당 사무실 또는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 문의 : 462-0334
(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용도 : 사무실 6층 (16평, 20평, 36평), 8층(14평)
문의 : 462-1870(가톨릭센터 행정실)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2007. 7. 21. 함영상(비오) 신부님
2016. 7. 25. 방주섭(스테파노) 신부님

특별판 '요즘애들 우리애들' 7월의 가족미션

가족과 함께 문화 생활 후 (영화, 연극, 콘서트 등) 함께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 참여 방법 • 카카오톡 친구찾기 → ID/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검색 → 친구 추가 → 인증샷 보내기

추첨을 통해 **치킨교환권**을 드립니다.



발표 : 7월 특별판 (7월 28일자)



아흐레 만에 성경 통독!

장재봉 신부와 함께 하는 '8박 9일 성경 통독 피정'에서 체험하세요

일시 8월 2일(금)~10일(토)

장소 양산 정하상 바오로 영성관

문의 (052)272-2405~6 월평성당 사무실

<p>(주)씨피여행사 1. 9/24 이스라엘 성지순례 9일 385만원 2. 10/8 동유럽 품격성지순례 12일 395만원 3. 10/18 멕시코/과달루페, 페루, 쿠바11일 247-5858, 010-3837-6434 부산출발</p>	<p>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벳타) 758-1100 지하철 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흉조·에스테틱</p>	<p>성가병원 수부&족부 · 관절 중점진료 김 우 식 병원장 (알렉산텔) 정형외과/수부외과 전문의 내과(위, 대장 내시경)·공단검진·선원검진 지하철 1호선 범일역 9번 출구 645-9771~5</p>	<p>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스마일정경우비뇨기과 정 경 우 (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칼 2층 744-8181 www.bmu.co.kr 상담 010-5616-8600</p>	<p>제주도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에서는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064)758-6476 010-4566-6476</p>
<p>잇몸치료/보형틀니/임플란트 박진철치과의원 원장. 박진철 (토마스) 552-2811 동래시장 횡단보도 앞 2층</p>	<p>해운대교리정형외과의원 비수술 척추·관절 통증클리닉 및 물리재활치료 정형외과/통증의학과 전문의 2인진료 원장. 하정환 (다미아노) 702-7579 해운대 정산역 7,9번 출구 신한은행건물 A동 4층</p>	<p>부산경남 최대규모 제조업체 가나안보청기 유통마진(가격거품) 제거 청각학 박사(교수) 맞춤상담 남포점, 서면점, 동래점, 미남역점 교구특별우대 257-3900</p>	<p>부산 가톨릭 여행사 마카오 성지순례 2박4일 오전 자유, 오후 순례 2명 이상 출발!! 이용 태 (안드레아) 0505)505-5001</p>	<p>이상열 마취 통증의학과 의원 허리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목·어깨통증(오십견), 손·발 저림 및 시림 구서전철역 앞 동산약국 2층 원장/전문 의 상 열(베드로) 516-0888</p>

애덕의집(그룹홈) 입소자 모집

대상 : 만 55세 이상 여성시각장애인(중증), 기초생활수급자 / 문의 : 464-3909(시각장애인선교회), 010-2249-5001

도시의집(무료진료소) 봉사자(물리치료사) 모집

봉사 : 매주 일요일 14:00~17:00 (월 1회 또는 격월 1회) 노동사목센터(사상당 옆) 무료진료소 봉사업무 : 물리치료 / 문의 : 010-4499-0100(노동사목 가톨릭노동상담소)

교육·모집·기타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회 모임

· 7.23(화) 11:00 · 가톨릭센터 경당
문의 : 010-8858-4807(이현기 신부)

예수성심의 어머니와 함께하는 신심미사

· 7.26(금) 13:30~16:30 · 성분도 은혜의 집 (성모님과 함께하는 성시간, 강의, 미사)
문의 : 010-6311-8071(예수성심전교수도회)

한국순교복자뻘마수녀회 후원회 미사

· 7.27(토) 11:00 · 양산 무아의 집(법일성당 입구 김안과 09:00 출발, 김해 부원역 09:20 경유)
문의 : 010-3355-4997

분도명상의집 렉시오디바나(성독) 월기도모임

· 7.27(토) 10:00~16:30 · 분도 명상의 집
준비물 : 성경 / 참가비 : 1만 5천원
문의 : 010-3271-0766(권 벨라티다)

새예루살렘 향심기도 하루피정

· 7.28(일) 10:30~16:00 새 예루살렘
강사 : 김경순 수녀, 왕영수 신부
참여비 : 1만원(중식 포함) / 신청 : 7.24(수)까지
문의 : (052)239-1249, 010-5488-1239

올리베따노성베네딕도수도회

아시아선교후원회 미사 및 특강
· 7.30(화) 14:00~17:00 · 성분도 은혜의집
문의 : 010-9344-3771

성바오로수도회 <말씀으로 마음치유>

· 9월부터 10주간 · 가톨릭센터 1층 성바오로 서원
오전만 월 10:00~12:30, 저녁만 수 19:00~21:30
대상 : 30대~60대 남녀 / 문의 : 521-8898

제주면회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 오희 트레킹 왕복항공권과 여름해변 또는 우도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자유일정 포함 : 7.27~30, 8.1~4, 8.6~8, 8.10~13, 8.15~18, 9.1~4(추자도)
문의 :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 7.28~31, 8.2~4, 8.6~8, 8.15~18, 8.28~30, 9.1~4 / 대상 : 개인, 가족, 분당 단체 등
올레, 미사, 기도, 강의 / 문의 : (064)796-9181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효소단식피정 : 8.1(목)~4(일) / 28만원
성경완독피정 : 8.10(토)~18(일) / 48만원
여름개인피정프로그램 : 8.9(금)~11(일)
문의 : 010-3340-0201

한티순교성지 피정

· 8.3(토) 16:00~4(일) 13:00
주제 : 영화산책 / 강사 : 변지안(한티순교성지)
문의 : (054)975-5151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조각보> 모임

· 매월 셋째 일 16:00 · 대구 계산서원
문의 : 010-2353-6219, (054)976-6219
<http://smm.or.kr>

최봉도 신부 희망기도(내적치유 피정)

· 8.9(금)~11(일), 10.18(금)~20(일)
· 합정동 마리스타교육관
최봉도 신부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방법
문의 : 010-6254-0057(전 크리스타나)

제주 성지순례 모집

· 8.9~11, 9.17~19, 10.15~17, 11.5~7
· 제주 성지 6곳(성지 해설)
문의 : (064)805-9689(가톨릭사회경제연합)

ICPE 선교회 새로운 복음화 학교

· 8.10(토)~15(목) · 예수성심영성센터 (부산 금정구)
강사 : 프릿츠 마스카레나스
문의 : 010-7535-9111(정중철)

부산지역 국악성가와 반주장구 배움터

· 8.24(토) 10:00~18:00 · 우동성당
강사 : 강수근 신부(성가반), 송민영 선생(장구반)
참가비 : 교재포함 6만원 / 신청 : 입급자 선착순
국민 295401-01-187345 송민영(국악성가)
문의 : (02)558-2004, 010-4932-5857(부산지부장)

강수근 신부와 함께하는 국악성가 캠프

· 8.30(금)~9.1(일) · 광주명상의집
참가비 : 20만원 / 모집인원 : 선착순 200명
문의 : 010-2279-0255(국악성가연구소)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수시 2,676명,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40명 모집
원서접수 : 9.6(금)~10(화)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입학상담 : (053)850-2580

2019 해외선교사 귀국프로그램

· 10.14(월)~18(금) / 대상 : 해외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귀국한지 1개월 이상)
문의 : (02)953-0613(주관 : 한국가톨릭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KCFMEA), 주최 :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해외선교·교포사목위원회)

작은형제회 56차 이태리 순례

· 11.8(금)~20(수) 440만원
문의 : 010-9454-5648, www.terrasanta.kr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7.28(일) 13:30	본원	010-2835-4858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기본이 충실한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19학년도 2학기 프로그램 강사 모집

모집분야 : 자격증 과정-학습코디(기획), 와인소믈리에 교양과정-유티브(영상편집) 제작, 시낭송 등
접수기간 : 2019년 7월 22일(월)까지
문의 : 510-0951~3, <http://edu.cup.ac.kr>

부산가톨릭의료원
메리놀병원

‘믿음을 주는 병원, 안전한 병원, 메리놀병원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이지영 과장 부임
감염, 알레르기, 호흡기, 신경, 혈액, 내분비
문의 : 461-2243 (소아청소년과)

가톨릭센터
복음 문화 나눔
행복한 세상

가톨릭센터 초대전
검은 땅, 검은 땀, 검은 얼굴

전시 : 대청갤러리
6.24(월)~7.29(일)
작가 : 사진가 박병문
사라진 탄광, 땀의 흔적을 찾고, 광부의 인생길을 마주하다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국가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p>	<p>수맥과 건강 불면증, 만성피로, 혈액순환장애, 정신집중 안됨 치료해도 효과를 못보는분, 문의 환영 사무실 517-3233 서순복(말바나) 010-3862-6834</p>	<p>동의의료원 무릎관절센터 무릎 관절염, 무릎 인공관절, 관절 내시경, 스포츠 외상 정형외과 송무호(토마스)박사 미국 피츠버그 대학병원 전임 의사 영국 옥스포드 대학병원 연수 관절센터 예약 850-8747</p>	<p>하지정맥류 증점클리닉 길맥흥부외과 모카, 베나실, 고주파, 레이저, 보습수술 원장. 박 동 옥 (안드레아) 754-9975~6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임페리얼타워 15층</p>	<p>바른성모안과 망막(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망막혈관폐쇄), 백내장 원 장. 최 베드로(한국안과학회 정회원) 242-0075 서구 천원 바른병원 3층</p>
<p>모니카주단.한복 혼수예단, 결혼예복 전문 향 위 식(레오) 김 필분(모니카) 645-5127, 010-3553-5127 부산진시가지 1층 주단부 151, 152호(1층 4호분 중)</p>	<p>로앤리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이세진&변호사이윤대) 사무장. 김 성 철 (마르코) 717-3530, 010-5658-7748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305호(겨레동, 로앤리타워) 검찰청 정문 앞</p>	<p>재활전문 수요양병원 재활·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입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 (베드로)</p>	<p>국내 성지순례 7/27(토) 07:00~ 원주교구 배운+묘재+용소막성당 참가비 4만원 미래고속관광 우중한 (리차드) 010-3720-0303</p>	<p>독일보청기 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시 수리 김 무 나 (글라라) *교우 특별 할인* 803-5588, 1871 서면 지하철도 4, 8번 출구(1층, 빨간색 간판)</p>